

2016년 12월 20일, 구좌읍 종달리 종달리마을회관, 송정희 조사.  
김보배(여, 1939년생, 구좌읍 종달리)

**[제보자]** 옛날에 푸나무 장사가 산 거라. 푸나무 장사가 허는다. 그날그날 푸나무 혼 묵썩 헤다가 생활을 헤다가 그 푸나무가 비가 오면은 이제 푸나무 허례 못 가니깐 이제 굽을 판이라. 이제 밥을 안 먹고 살 거 아니 게난 이제 요 사름이 안 뛰겠다. 비와 부난 날 좋을 때 푸나무 두 단 헤다가 혼 단은 날 좋을 때 먹고 혼 단은 비 오면은 풀어서 생활을 허자 헤가지고, 푸나무를 두 묵썩 헤 온 거라. 헤가지고 혼 이삼일 혼 다섯 단인가 멧 단인가 포겐 논 거라. 포개 난 아, 둑날은 강 보난 푸나무 다섯 단이 엊어져분 거라.

아이고 이제 푸나무 누게 가져가 벋다고 이제 그 사름이 이제 또 푸나무를 헤다 낫다. 그 자리에 헤다 낫. 이제 오늘은 내가 여 여기 넉 누게가 가정 가는고 이제 사름을 심을라고 그 푸나무 소굽에 눈 거라. 누워네 이젠 잠을 자는디 밤중엔 뛰나네 이젠 하늘에서 그 쉘가 쉘갈고리가 내려온 거라. 내려와가 그 푸나무를 오꽃 굽어서 하늘 우에 올라가분 거라. 게난 그 사름도 같이 올라 간 거라. 하늘에 간 게난

“너는 어떻 헹 왓느냐?”

헤난에, 그 하늘에 간 말 문답하는 사름이

“너는 어떻 헤서 여기 왓느냐?”

“나는 그날 그날 푸나무 혼 묵썩을 비어다가 생활을 헤다가 비 온 날엔 밥을 못 먹게 뛰난 두 묵썩 헤다놔네. 혼 번은 도독을 맞아가 이거 헤다난 지키는 게 이제 이 여기??지 왓수다.”

“너는 푸나무 아무 복도 엇덴, 푸나무 혼 단 복도 엇다.”

허는 거라. 그 사름?라. 경 헌디

“너가 웨 욕심을 내서 두 단을 헷느냐? 복이 아무 것도 엇다.”

허는 거라. 그 사름?라. 경허난 이제 그 말 문답하는 사름이

“혼 번 그 복 주는 방에 강 보라. 너가 복을 탄 낫이냐 안 탄 낫이냐 강 보라.”

허난, 강 보난 복이 아무 것도 엇어, 지에 엇인디 말겟 보난 저런디 복이 혼나 돌아졌이난

“저 복은 어떻 헌 복이냐?”

허난에 이제 저, 저거 거지 복이엔 거지 복이난

“나도 거지난 저 복을 날 줍서.”

그 사람이 경허난

“넌 거지라도 너 복이 아니여.”

경 헨 이젠 그 사름이 복을 주렌 허난 복을 주난 걸 가지고 온 거라.

“아, 이 복을 가정 강 이제 살다가 누계가 집이 들어왕 거지렌만 허거들랑 그 복을 그 사름을 줘 불라.”

헌 거라. 게 이제 그 복을 가정 왕 산 거라. 그날 그날 살다가 보니깐 하루는 이제 달이 훤헌 날인디 이제 두부처 두갓이가 각시는 아기 베고 서방을 그자 이젠 둘이가 온 거라. 완 넘어가다가 여기 흐쓸 쉬엉을 멋언 가肯 허는 거라. 쉬언 멋언 가肯 허난

“아이고 요 정제라도 주연을 멎어주민 좋겐.”

하난, 이제 정제를 주연을 멎이난 밤중은 웨난 막 얘기 우는 소리가 나는 거라. 그 부엌에서 경 허난 이제 애길 낫어. 둘이가 그 부엌에서 애길 나네 허난에, 각시가 서방?라 곤는 말이 이제

“아기 이름은 뭘로 짓느냐?”

고, 영 허난에

“오널은 날도 좋고 달도 청명허니깐 거지로 지우켜.”

이제 서방?라 경 골으난, 아 이젠 거지렌 이름을 지우난 그 주연을 그 복을 탄 완 살던 사름이 거지렌 허난

“이제라그네 안방으로 들어오라, 안방으로 들어오라.”

“무사 안방으로 들어오렌 햅이냐?”

헨, 아니 경 허든 말든 무조건 안방을 들어간 안방을 츄질 헹 살렌, 경 헹 그 사실대로 들은 골으니깐 그 사름이

“우리 경 허 필요가 없이 우리 요 제산을 꼭같이 우리 반씩 나눠그네 같이 살켜.”

경 헹 잘 살앗젠텁 날에. (웃음)

- 핵심어 : 푸나무, 하늘, 복 주는 방, 두갓이, 아기, 이름, 거지